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미국 출구전략 논의 확대와 시사점

- 재무부가 주택저당증권(MBS)의 단계적 매각 계획을 발표하고 연준 또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리버스 레포(Reverse Repo) 발행을 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출구전략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짐.
 - 재무부는 주택금융시장 회복에 따라 금융위기 기간 동안 매입했던 1천 42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 달 100억 달러씩 단계적으로 매각한다고 발표하였으며, 매각차익은 150억~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재무부의 MBS 매각과 연준의 정책방향은 무관하지만 향후 연준이 출구전략을 취할 경우 MBS 매각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MBS 매각에 따른 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으로 관측됨.
 - 한편 뉴욕 연준은 장기 유가증권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리버스 레포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함.

- 또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잇달아 출구전략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연준 내부에서도 출구전략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토마스 호니그 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런던정경대(LSE)에서 가진 연설에서 최근의 물가 상승이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일부 기인한다고 지적하고,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자산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.
 -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언제 어떻게 완화정책을 정상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2011년 연준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책 정상화를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.
 - 필라델피아 주의 찰스 플로서 총재와 델러스 주의 리차드 피셔 총재 또한 완화정책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, 연준 내부에서도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.
 - 그러나 버냉키 연준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연준위원들은 정책변화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.

(Bloomberg 등, 3/31)